

1987년 6월항쟁에 앞서 창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에서 큰 몫을 담당하면서 성평등사회를 위한 혁공을 이룩하며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연이 탄생하던 단시를 회상하면 그때는 폭압적인 독재정권에 저항한 학생의 물고문 치사사건, 최루폭탄 치사사건, 시위여대생들의 성고문 사건 등을 비롯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한 생존권 유린 등의 좌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눈 여성단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단체연합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태어난 것이었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20년간 여연은 창립정신이었던 남녀평등, 여성복지, 민주통일사회 실현 등에 주력한 결과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한국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복리를 향상하는 모든 운동에 앞장서서 성취해냈습니다.

여연은 이제 전국 6개 지부와 29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여성계를 대표하고 있으며 한국시민사회의 중요한 리더로서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여성, 환경, 문화라고 합니다. 이는 갈등과 대결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 평등을 존중하는 미래의 이상으로서 이는 여성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특성인 나눔, 돌봄 등의 특성이 발전됨으로써 진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6년도 여연의 호두는 호주제 폐지 이후 부상한 여성의 경제적 평등과제와 맞물린 <빈곤의 여성화 극복>이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이 오랜 세월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서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책결정자를 선택하는 중요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연의 적절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늘의 여연을 이끌고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활동가를 위한 대책에도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기를 빌며 여연의 발전을 축하합니다.

7ax 02-336-6459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1987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 민주·통일사회권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양하게 분화되어온 여성운동의 외제와 파워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규합해왔습니다.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한국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모든 운동에 앞장서왔습니다. 이제는 전국 6개 지부와 29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계권 대표하는 단체로, 아울러 한국 시민사회권 대표하는 리더로서 부상하였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여성, 환경, 문화라고 합니다. 이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미래의 이상이 신중하게 선택한 언어들이며, 곧 인류의 미래 비전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사회의 현재는 이런 전망을 갖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무수히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국제적 수준의 전망을 우리도 꿈꾸어 볼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환영하였던 호주제 폐지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개된 운동이 아닙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논의되고 조금씩 법 개정이 이루어져온 것입니다.

이렇듯 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운동이 30년을 지속해야 성과권 얻는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와 단체들을 조직하고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조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과제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애로는 성인이 되는 20년, 지금부터는 특별히 지역의 작고 명세한 단체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언니로서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또 믿습니다. 아울러, 처우나 사무환경이 모두 열악한 가운데 연합단체 20년의 역사를 지키고 만들어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모든 활동가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